

##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조은주\*\* · 이은희\*\*\*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 3개의 시지역 소재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학생 7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비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승인욕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자기비하, 승인욕구)을 강화시켜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상담 및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우울, 불안, 비합리적 신념

\* 이 논문에 대하여 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이 이루어짐.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ehlee@kyungnam.ac.kr

##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갈등과 높은 긴장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와 외현화 문제(공격성, 비행)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Michael & Erika, 2006). 고교생의 69.9%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7.3%는 슬픔이나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김영란, 2004).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적응 양상을 초래하여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주애경, 2002), 특히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2010 상담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상담한 문제는 가족문제(24.8%)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문제는 정신건강이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박·불안(13.5%), 자살문제(7.6%), 우울·위축(6.7%) 순이었다. 양미진, 이은경과 이휘우(2006)의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불안 등 정신병리 요인의 점수가 높아졌다. 이러한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 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 그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가 주로 부적절한 부모-자녀 관계와 연계되어 발생하므로(이은주, 2010), 학교상담현장에서는 정서적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연계된 부모-자녀 관계 요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 양육행동의 세분화된 한 차원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김혜인, 2010; 이은경, 박성연, 2010; 현지은,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요구에 동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애정철회, 죄책감 유발과 같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강요적 부모의 전략들이나 조건적 승인이다(Barber, 1996). 따라서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허용하는 정서적 자율

성의 상대적 정도로서(Gray & Sternberg, 1999), 청소년의 사고, 정서, 느낌들 및 청소년 자신이 부모에게 수용될 수 없다는 의사소통이다(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의 발달과 정체감 형성을 방해하는(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Duriez & Goossens, 2006에서 재인용) 부정적 통제 형태로 간주된다(Mantzouranis, Zimmermann, Mahaim & Favez,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 의견, 느낌들의 조절에 초점을 둔 통제로서(Rogers et al., 2003),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될 위험성을 높여서(안명희, 2010),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2010; 정윤주, 2004; 최정아, 이해은, 2008; Nanda, Kotchick & Grover, 2012; Rogers et al., 2003; Soenens, Luyckx, Vansteenkiste, Duriez & Goossens,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서(Barber, 1996),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박영신, 2010).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여 왔으나 Soenens, Vansteenkiste and Luyten(2010)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분리불안을 느껴 자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간섭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성취지향적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죄의식을 유발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에 비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 청소년의 사고가 의존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의 98.4%가 대학교육비를, 86.7%가 결혼준비 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했다(통계청, 2010). 따라서 자녀를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5%)였다(통계청, 2010). 따라서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대, 특히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또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적응 간의 모형은 심리적 통제 효과 모형, 청소년 적응효과 모형, 상호적 모형 등이 있다(Soenens et al., 2008). 심리적 통제 효과 모형은 심리적 통제가 위험요인으로서 청소년 부적응의 선행요인으로서 작동한다고 본다. 청소년 적응 효과 모형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이 특정 부모의 반응을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상호적 모형은 상호작용모형으로서 발달적 결과를 부모와 자녀의 행동과 성격특징들 간의 지속적인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즉 덜 적응된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보다 심리적 통제전략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청소년의 우울 민감성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와의 분리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행변인으로 나타난 Soenens et al.(2006)의 연구와 모의 애착과 정서가 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행변인으로 나타난 안명희(2010)의 연구를 연결지어 부모의 부적응적 심리적 특성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청소년의 우울, 불안의 선행변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변인들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담 현장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Ellis, 1993)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으로 일상의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REBT에서는 정서적 문제들은 잘못된 사고패턴에서 결과하는 학습된 부적응적 반응들로 본다(Szentagotai & Jones, 2010). 즉 환경적 사건들과 정서적 문제들 간에 신념이 매개한다고 본다. Ellis(1997)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생물학적 요인(타고난 사고와 행동양식)과 사회적 요인(가정, 친구관계, 학교, 사회적 기관, 매체 등)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가정하였다. 스트레스-소질 모형은 임상적 증상들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생물학적 취약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은 스트레스 상황들에서의 인지적 취약성으로 합리적 신념은 보호요인으로 본다(David, Freeman & DiGiuseppe, 2010).

REBT에서는 요구(demandingness)를 다른 비합리적 신념들의 근간이 되는 핵심 비합리적 신념으로 보았다(Ellis, 1994). Ellis(1997)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

는 3가지 주요 요구 유형(자신들이 잘 수행해야 된다는 요구, 타인들이 자신들을 좋게 대우해주어야 한다는 요구, 생활조건들이 불편하지 않고 삶이 공정해야 된다는 요구)이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앙화를 야기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Ellis, 1991).

REBT이론에 따르면 한쪽에는 바람(desire)과 선호(preference), 다른 쪽에는 강요적 당위성(musts)과 요구(demands)가 있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Ellis & MacLaren, 2005). 바람이 강할수록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명령하듯이 적용하려는 경향이 커지는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하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요구를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하기 쉬우며 내적인 명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지만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양미숙(2006)의 연구, 부모의 과도한 기대나 간섭이 학대보다 비합리적 신념형성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정영미(2009)의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비합리적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런데 Giarrochi(2004)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을 예언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으로 자기비하와 승인욕구임이 확인된 바 있어서 비합리적 신념 중 자기비하와 승인욕구를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선정하였다.

Soenens et al.(2010)과 박성연, 이은경과 송주현(2008)의 연구에서 부와 모의 의존 지향 심리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의존적 우울성향을 높여서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비난 우울성향을 높여서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druff-Borden, Morrow, Bourland and Cambron(2002)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외부 사건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지각인 인지적 편향을 발달시키도록 해서 결국은 불안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김혜인, 도현심과 지연경(2011)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불안 및 우울 간에 인지적 편향의 일종인 비합리적 신념인 자기비하와 승인욕구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요구에 동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요나 승인으로서, REBT 이론에서의 요구의 개념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가 자신을 따라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부모의 강요가 내면화되어서 비합리적 신념으로 작동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의 욕구를 좌절시켜서 부모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하고,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높은 성취와 기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과가 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비난하여서 결국에는 우울과 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보았다.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때 부모와 자녀의 성을 고려해야 한다(Ruseel & Saebel, 1997). 자녀의 정서적 문제는 모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부의 양육행동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부의 양육행동까지 포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 성취지향 통제를 더 하고 모가 의존지향 통제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oenens et al., 2010)와 부가 성취지향적 통제를 더하고, 의존지향 통제는 부와 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성연 외, 2008)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지 않으며, 심리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성차에 대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도 비교적 일치하지 않는다(Mantzouranis et al., 2012). 또한 부모보다 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 성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나타나서(이은경, 박성연, 2010)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차별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Soenens et al.(2010)의 다집단 비교연구에서 자녀의 성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만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 애정철회,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행동통제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동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랐다(Barber, 1996). 즉 행동적 통제는 외현화 문제의 감소 등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심리적 통제는 내재화 문제 등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었다(Barber, 2002; Barber, Stoltz & Olsen, 2005). 정윤주(2004)는 아동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정아와 이해은(2008)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 수준이 높으면 자아통제력, 자아유능감이 높고 이는 우울을 감소시켰으며 심리적 통제는 직·간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켰다. 부모의 통제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심리통제를 행동통제와 구분되는 변수로 다루고 있다(정윤주, 2004).

Steinberg(1990)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강조된 이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부분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Soenens et al.(2010)은 심리적 통제를 단일 차원으로 보는 대신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하는 자녀에 대해 분리불안을 느끼는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 행동으로 자녀의 의존심을 유발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성취지향적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로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높은 성취기대를 하고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간접적인 행동을 하여 자녀의 자아비난적인 태도를 유발했다. 이처럼 부모의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 즉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자녀의 의존심과 자아비난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발달에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특성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oenens et al., 2010).

## 2. 불안

불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심리현상으로 명확한 원인이나 대상이 없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근심, 긴장 등으로 정의되는 감정반응이다(이옥주, 2002). 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반응양상으로 매우 불쾌하며 막연히 불안을 느낌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진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과 관련되어 과민성,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등을 동반한다(성지혜, 2000).

불안 발달을 설명하는 모형들 중 가장 포괄적인 모형은 유의한 생활사건, 유전적 성향,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모형이다(Barrow, 2002; Wijsbroek, Hale III, Raaijmakers & Meeus, 2011에서 재인용). 그런데 가족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이고 부모가 가족환경을 조성하므로, 부모의 특성이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불안 발달에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Nanda et al., 2012).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주, 2004; McLeod, Wood & Weisz, 2007; Nanda et al., 2012).

## 3. 우울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우울증은 12세미만의 아동에게서는 2% 이하로 매우 낮은 유병률을 나타내지만 청소년기에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00).

청소년기 우울의 원인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우울의 원인을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인 요인, 부모의 우울 전이, 가족의 사회적 지원 결핍, 또래의 사회적 지원 결핍 등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우울을 유발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적 등이 있었다(김선하, 김춘경, 2006; 신재은, 1998). 또 부모의 양육행동(문경주, 오경자, 2002; 이효심, 2011), 부모의 심리적 통제(김혜인, 2010; 이은경, 박성연, 2010), 비합리적 신념(송영희, 이윤주, 2010)도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비합리적 신념

REBT의 ABC이론에 따르면 정서·행동결과(Consequence)는 선행사건(Activating Event)때문이 아니라 신념체계(Belief System)로 인해 유발된다(Ellis & MacLaren, 2005). 즉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일상의 구체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비합리적 사고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생활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 때문이며 이 왜곡된 지각에 비합리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관념들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고 내재화시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Ellis, 1994).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이진용, 1988; 정영미, 2009), 자아상태와 생활자세(윤선옥, 1994),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재순, 1991) 등이 있었다. 비합리적 신념체계에서 인간의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연유되며 우리가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엄청나게 잘 못한 일이라고 스스로 믿거나 거부당한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남성, 1995).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및 불안을 함께 다룬 연구들에서 높은 비합리적 신념이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균, 원호택, 1991; Ciarrochi, 2004).

####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역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양육행동의 한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연구되어 왔다(문경주, 오경자, 2002; Rapee, 1997).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원을 세분화해서 연구하려는 경향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부정적 양육행동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일탈, 약물남용 등의 외현화 문제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Barber & Harmonm 2002;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정윤주(2004)는 아동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최정아와 이해은(2008)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간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세분화된 한 차원인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권미화, 2006; 양미숙, 2006; 임정규, 2003).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통제차원 중 자녀의 부정적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Soenens et al.(2010)은 자녀의 독립에 대해 부모가 분리불안을 느끼게 될 경우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를 하게 되고 이는 이후 자녀를 의존적이게 하며, 부모의 완벽주의는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하게 하여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녀를 자아비난적이게 하는 경로를 통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발달에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특성임이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의존적이 되도록 하므로 비합리적 신념의 승인욕구에,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자아비난적이게 하므로 비합리적 신념의 자기비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비합리적 신념은 우울 및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Ciarrochi(2004)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을 예언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으로 자기비하와 승인욕구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 우울과 불안을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하위 영역들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자기비하, 승인욕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하위 영역들이 비합리적 신념의 두 가지 하위 변인(자기비하, 승인욕구)들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청

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합리적 신념의 두 가지 하위 변인들이 두 가지 유형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술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비합리적 신념, 우울 및 불안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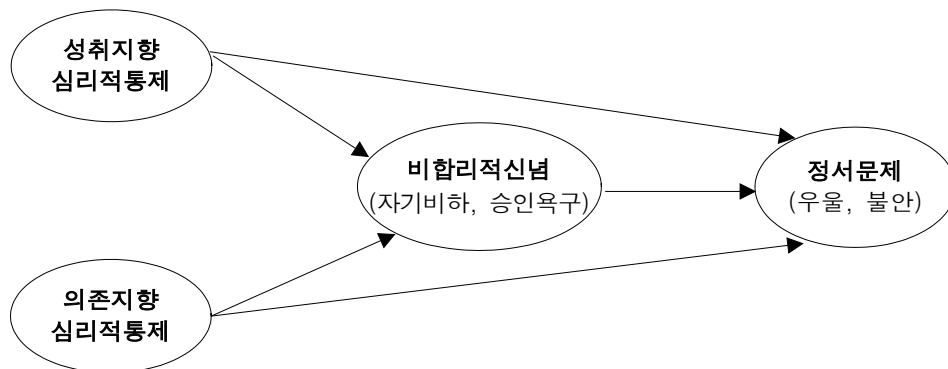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 III. 방 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의 3개의 시에 소재한 6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140부씩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 학급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80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부모 중 한쪽의 심리통제에 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총 75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설문 응답자 수 및 구성 비율은 남학생이 369명(48.6%)이고 여학생 390명(51.4%)이었으며, 1학년이 389명(51.2%)이고 2학년이 370명(48.8%)이었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Soenens et al.(2010)이 개발한 DAPCS(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17문항을 첫번째 연구자와 영어과 교사 1인, 원어민 교사 1인이 함께 번안하고 상담심리학 박사인 두 번째 저자와 이중언어사용자인 영어교육학 박사 1인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한글로 번안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가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1개 학급 35명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해 본 결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을 들 수 있었다.

본 척도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DPC: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8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PC: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9문항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경우 행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에 관한 5점 Likert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문항으로 이루어진 DAPCS의 하위척도인 의존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요인과 9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취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요인의 단일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와 모를 대상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가 표 1,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들의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DAPCS의 하위척도인 의존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요인 8문항과 성취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 9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존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 4문항과 성취지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 4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최종 측정모형들은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의 DAPCS 하위척도들의 초기문항들과 최종선정문항들의 부합도

| 척도     |    | 문항수 | $\chi^2$ | df | p     | NNFI | CFI  | RMSEA |
|--------|----|-----|----------|----|-------|------|------|-------|
| 의존지향   | 초기 | 8   | 362.87   | 20 | <.001 | .704 | .789 | .150  |
| 심리적 통제 | 최종 | 4   | 2.06     | 2  | .357  | .999 | .999 | .006  |
| 성취지향   | 초기 | 9   | 459.00   | 27 | <.001 | .892 | .919 | .145  |
| 심리적 통제 | 최종 | 4   | 4.09     | 2  | .129  | .994 | .998 | .037  |

주. N = 759

표 2

모의 DAPCS 하위척도들의 초기문항들과 최종선정문항들의 부합도

| 척도     |    | 문항수 | $\chi^2$ | df | p     | NNFI | CFI  | RMSEA |
|--------|----|-----|----------|----|-------|------|------|-------|
| 의존지향   | 초기 | 8   | 392.43   | 20 | <.001 | .650 | .750 | .157  |
| 심리적 통제 | 최종 | 4   | 3.79     | 2  | .150  | .989 | .996 | .034  |
| 성취지향   | 초기 | 9   | 298.34   | 27 | <.001 | .923 | .942 | .115  |
| 심리적 통제 | 최종 | 4   | 3.65     | 2  | .161  | .994 | .998 | .033  |

주. N = 759

표 3, 4에 부와 모를 대상으로 한 DAPCS가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라는 1요인 모형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이루어진 2요인 모형의 부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부를 대상으로 한 경합모형들의 부합도 지수

| 경합모형   | $\chi^2$ | df | p     | NNFI | CFI  | RMSEA |
|--------|----------|----|-------|------|------|-------|
| 2요인 모형 | 58.70    | 19 | <.001 | .971 | .980 | .053  |
| 1요인 모형 | 210.86   | 20 | <.001 | .888 | .920 | .112  |

주. N = 759

표 4

## 모를 대상으로 한 경합모형들의 부합도 지수

| 경합모형   | $\chi^2$ | df | p     | NNFI | CFI  | RMSEA |
|--------|----------|----|-------|------|------|-------|
| 2요인 모형 | 101.04   | 19 | <.001 | .934 | .955 | .076  |
| 1요인 모형 | 201.89   | 20 | <.001 | .868 | .905 | .110  |

주. N = 759

표 3, 4에 제시되었듯이 1요인 모형은 부합도가 매우 낮지만 2요인 모형은 부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4의  $\chi^2$  값은 2요인 모형도 부합되지 않음을 시사하지만  $\chi^2$  값은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인 부합도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의 2요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DAPCS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이루어진 2개 차원의 척도 모형이 단일차원의 척도보다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부록 1, 2에 부와 모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DAPCS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신뢰도(내적일치도): 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 .72,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80,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 .69,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76).

## 2) 우울

통합적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 3) 불안

Beck, Epstein, Brown and Steer(1988)이 개발하고 권석만(1992)이 번안한 Beck의 불안 척도 (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육성필과 김중술(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9이었다.

### 4) 비합리적 신념

Lindner, Kirkby, Wertheim and Birth(1999)가 개발한 단축형 GABS(Shortened GABS) 26문항을 송영희와 이윤주(2010)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글판 단축형 GABS를 사용하였으며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척도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2가지 하위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자기비하 4문항과 승인욕구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는 자기비하가 .86이고 승인욕구가 .74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의 신뢰도와 단일차원성(Hunter & Gerbing, 1982)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Cronbach, 1951)를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내적 일치도는 척도의 항목들이 단일차원성임(Nunnally, 1978)을 가정한다(Lee, Jamieson & Earley, 1996에서 재인용). 그런데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내적 일치도, 문항의 전체상관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의 검증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Gerbing & Anderson, 1988) LISREL 8(Jöreskog & Sörbom 1993)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DAPCS 문항 중 부합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 제거하여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고 단축형 DAPCS의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으며,  $\chi^2$ 에 대한 p 값 외에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chi^2$ 는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될 때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적인 부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부합도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우울, 불안)간에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자기비하, 승인욕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이 측정오차의 통제가 가능하며 간접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Preacher & Hayes, 2004)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록 3에 제시된 바와 모든 연구변인들이 왜도(skewness) < | 3.0 | 이고 첨도(kurtosis) < | 10.0 | 으로서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Kline, 2005)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 IV. 결 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성취지향)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우울, 불안)간에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성취지향)가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를 강화시켜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매개모형이 그림 2, 3에,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성취지향)가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를 강화시켜서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매개모형이 그림 4, 5에 제시되어 있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성취지향)가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를 강화시켜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매개모형이 그림 6, 7에,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의존지향, 성취지향)가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를 강화시켜서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매개모형이 그림 8, 9에 제시되어 있다.

## 1.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비하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우울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14, N = 759) = 13.22, p = .51, NNFI = 1.00, CFI = 1.00, RMSEA = .000; \chi^2(14, N = 759) = 20.16, p = .13, NNFI = .996, CFI = .998, RMSEA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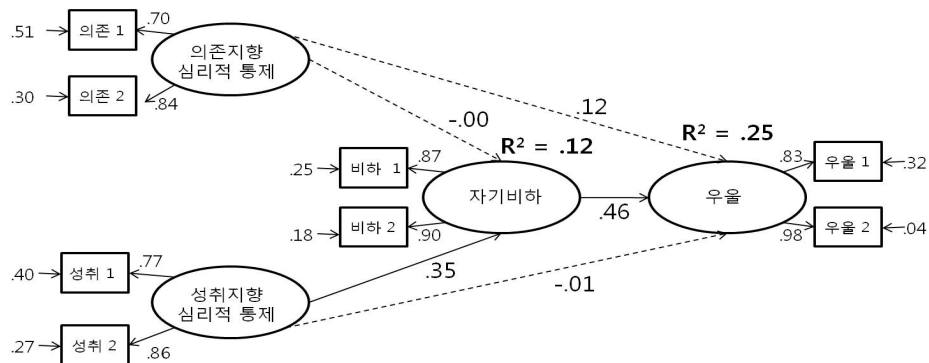


그림 2. 부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비하 및 우울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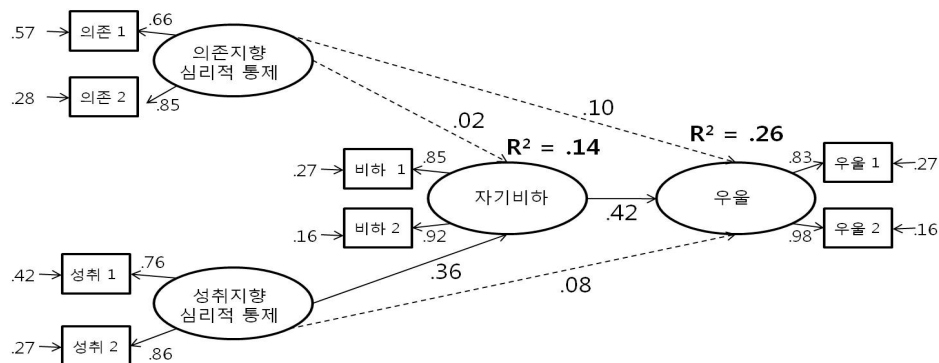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비하 및 우울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2와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35$ ,  $t = 4.01$ ,  $p < .01$ ;  $\beta = .36$ ,  $t = 4.22$ ,  $p < .01$ ),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이 이들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Sobel test: 각각,  $\beta = .46$ ,  $t = 9.98$ ,  $p < .01$ ;  $\beta = .42$ ,  $t = 9.50$ ,  $p < .01$ ), 즉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각,  $\beta = .16$ ,  $t = 3.78$ ,  $p < .01$ ;  $\beta = .15$ ,  $t = 3.89$ ,  $p < .01$ ).

## 2.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비하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불안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 $\chi^2$  (14,  $N = 759$ ) = 19.08,  $p = .16$ , NNFI = .996, CFI = .998, RMSEA = .022;  $\chi^2$  (14,  $N = 759$ ) = 26.47,  $p = .02$ , NNFI = .991, CFI = .995, RMSEA =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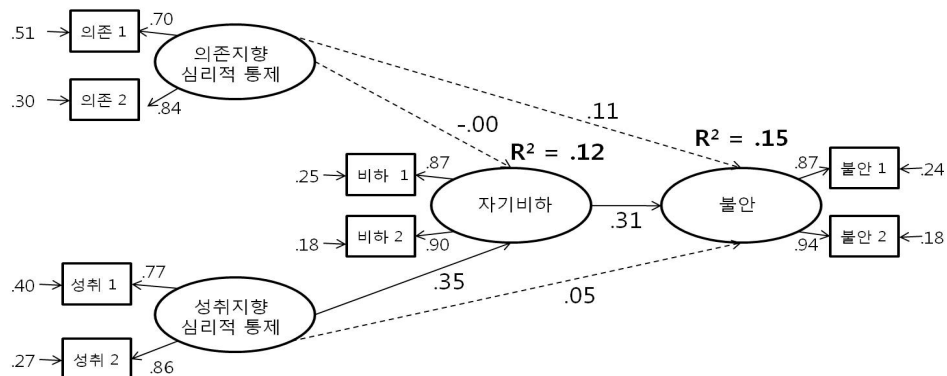


그림 4. 부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비하 및 불안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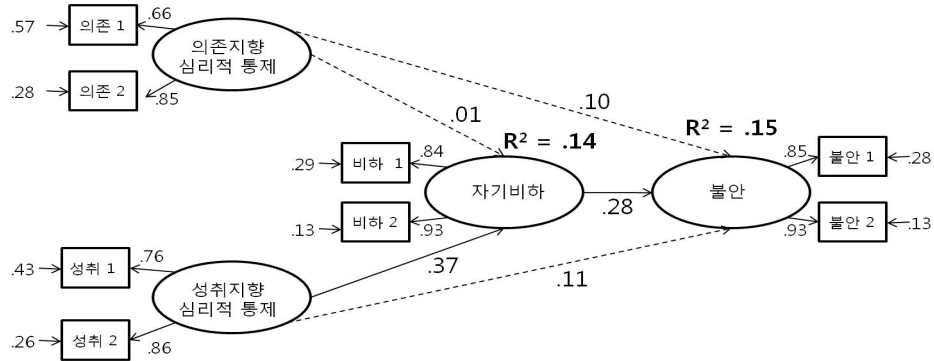


그림 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비하 및 불안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5와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35$ ,  $t = 4.06$ ,  $p < .01$ ;  $\beta = .37$ ,  $t = 4.29$ ,  $p < .01$ ),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 수준이 이들의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각각,  $\beta = .31$ ,  $t = 6.88$ ,  $p < .01$ ;  $\beta = .28$ ,  $t = 6.28$ ,  $p < .01$ ), 즉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obel test: 각각,  $\beta = .11$ ,  $t = 3.52$ ,  $p < .01$ ;  $\beta = .10$ ,  $t = 3.59$ ,  $p < .01$ ).

### 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승인 욕구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우울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 (14, N = 759) = 23.83$ ,  $p = .05$ , NNFI = .991, CFI = .996, RMSEA = .030;  $\chi^2 (14, N = 759) = 29.91$ ,  $p = .01$ , NNFI = .986, CFI = .993, RMSEA =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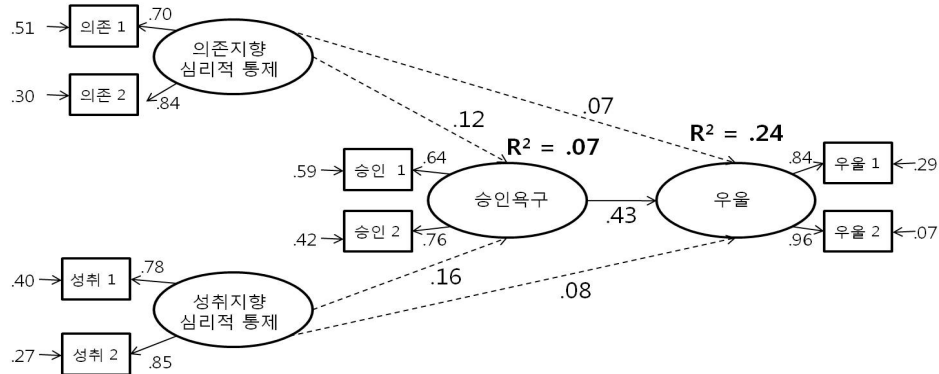


그림 6. 부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승인욕구 및 우울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우울(각각,  $\beta = .07$ ,  $t = .85$ ,  $p > .05$ ;  $\beta = .08$ ,  $t = .97$ ,  $p > .05$ )과 청소년의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각각,  $\beta = .12$ ,  $t = 1.23$ ,  $p > .05$ ;  $\beta = .16$ ,  $t = 1.64$ ,  $p > .05$ ),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만이 이들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3$ ,  $t = 7.79$ ,  $p < .01$ )

따라서 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승인욕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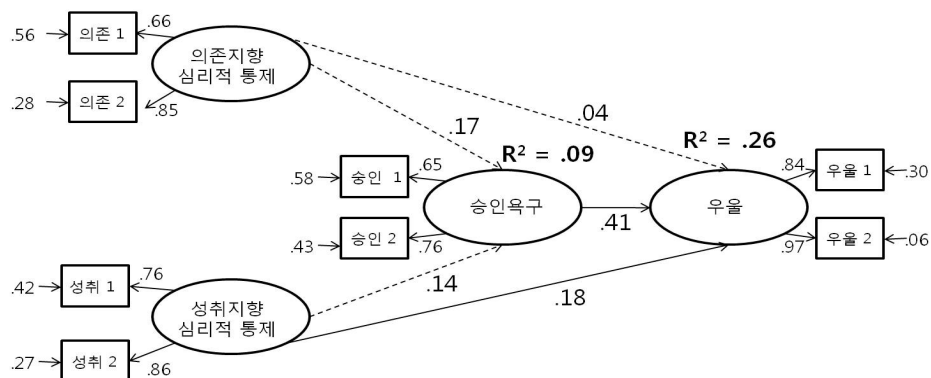


그림 7.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승인욕구 및 우울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과 우울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각각,  $\beta = .17, t = 1.68, p > .05$ ;  $\beta = .04, t = .48, p > .05$ ),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beta = .14, t = 1.45, p > .05$ ) 직접적으로만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8, t = 2.23, p < .05$ ).

#### 4.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불안과의 관계에서 승인욕구의 매개역할

부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의 불안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 각각,  $\{\chi^2 (14, N = 759) = 27.90, p = .01, NNFI = .987, CFI = .994, RMSEA = .036; \chi^2 (14, N = 759) = 38.50, p = .14, NNFI = .976, CFI = .988, RMSEA =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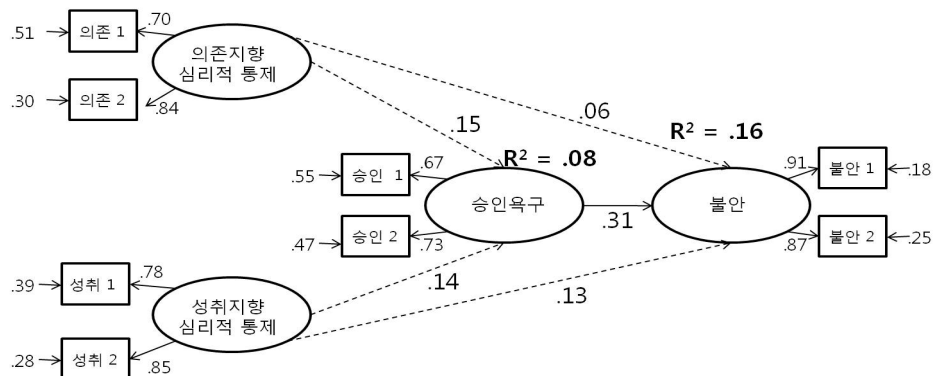


그림 8. 부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승인욕구 및 불안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불안(각각,  $\beta = .06$ ,  $t = .67$ ,  $p > .05$ ;  $\beta = .13$ ,  $t = 1.48$ ,  $p > .05$ )과 청소년의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5$ ,  $t = 1.46$ ,  $p > .05$ ;  $\beta = .14$ ,  $t = 1.39$ ,  $p > .05$ ).

따라서 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불안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인욕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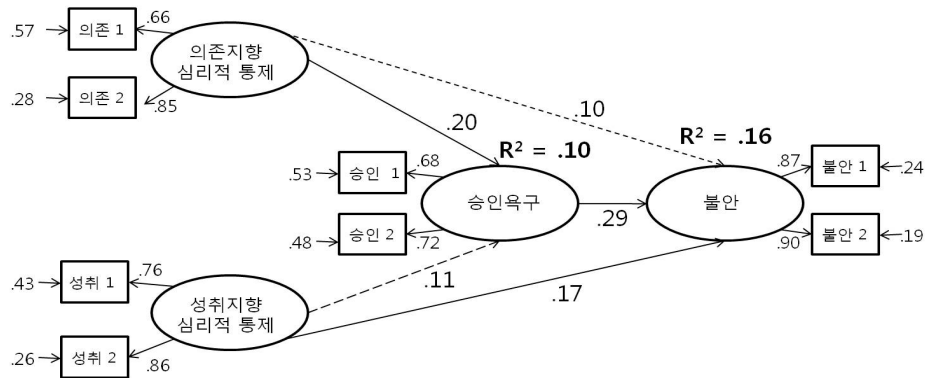


그림 9.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승인욕구 및 불안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각각,  $\beta = .20$ ,  $t = 1.99$ ,  $p < .05$ ), 청소년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이 이들의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beta = .29$ ,  $t = 5.41$ ,  $p < .01$ ), 즉 간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  $\beta = .06$ ,  $t = 1.98$ ,  $p < .05$ ). 그러나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녀의 승인욕구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beta = .11$ ,  $t = 1.14$ ,  $p > .05$ ) 직접적으로만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 ,  $t = 2.06$ ,  $p < .05$ ).

## 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 자기비하와 승인욕구의 매개 역할은 그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비하는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아비난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 박성연 외(2008) 및 Soenens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비합리적 신념인 자기비하 수준을 증가시키는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완벽주의, 요구, 자기 지향적 당위성, 파국화의 주제와 관련된 사고를 가지는 것이 불안을 초래하고(Ellis, 1994), 요구가 우울장애의 핵심 비합리적 신념이며(Ellis, 1987), 자기비하가 요구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제안(Dryden, 2002)과 그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결국은 내적인 명령으로 확대되어 자기비하 신념을 형성하여 결국에는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적 사건들과 정서적 문제들 간에 신념이 매개한다고 보는 REBT의 이론을 실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REBT의 핵심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충족하려는 자신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적응적 신념들을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도전하여 잘 기능하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Caserta, Dowd, Davis & Ellis, 2010). 결국 REBT의 요체는 합리적 사고를 촉진하고 비합리적 사고의 감소에 있다. 따라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비하 신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 상담초기에 부모의 높은 성취와 기대수준의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선적으로 자기비하 신념의 수정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둘째, 승인욕구의 경우는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의 경우는 승인욕구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승인욕구가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불안 간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외부 사건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지각인 인지적 편향을 발달시키도록 해서 결국은 불안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발달시킨다고 본 Woodruff-Borden et al.(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자녀의 불안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Nanda et al., 2012),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인지적 변인인 승인욕구를 통해서 불안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안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의 절대적 비합리적 신념(승인욕구)를 감소시키고 선호적인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하는 개입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조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에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는 승인욕구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불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자녀의 승인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비합리적 신념인 승인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인 승인욕구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자녀에 대해 분리불안을 느끼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녀의 분리불안적 태도를 유발하여 의존적이 되도록 하므로(Wood, 2006), 청소년의 불안 수준에는 승인욕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고 Soenens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의존심을 매개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의 경우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모두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인 승인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우울과 불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모와는 달리 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우울과 불안 간의 관

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승인욕구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승인욕구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부와 모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모가 부모보다 자녀의 사회화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자녀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Nakamura, Stewart & Tatarka, 2000) 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더 높고(Barber & Harmon, 2002), 남성이 여성보다 덜 관계지향적이고 더 성취지향(Blatt & Shichman, 1983; Josselson, 1987)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보다 적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인 자기비하를 강화시켜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고,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비합리적 하위신념인 승인욕구를 강화시켜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oenens et al.(2010)의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특성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차가 나타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통제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비하적 사고를 촉진하여 우울 및 불안을 심화시키고,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승인욕구를 강화시켜 심리적 독립을 저해하여 불안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환경적 사건들과 정서적 문제들 간에 인지적 취약성 요인인 비합리적 신념(자기비하와 승인욕구)이 매개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치료 및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학교상담현장에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상담적 개입을 실시할 때에는 호소증상 외에 위험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과 증상발달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비합리적 신념까지 고려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정서적 문제 개입에는 부모가 포함된 가족에 기반한 치료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지만(Kaslow, Broth, Smith & Collins, 2012), 청소년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를 교정하는 REBT도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가 위험요인으로서 청소년 부적응의 선행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심리적 통제 효과 모형에 근거하여 청소년 우울과 불안의 선행요인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문화 환경,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세분화되어 연구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청소년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 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국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도 함께 측정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시각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비합리적 신념,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함으로써 인과적 해석을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므로(김혜인, 2010; 현지은, 2010) 성별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나 자녀의 다른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미화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남성 (1995). **인지적 행동 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7(6), 249-261.
- 김성일, 정용철 (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3(1), 5-27.
- 김영란 (2004). **고등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인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인, 도현심, 지연경 (201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4), 15-36.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영신 (2010).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51-68.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성지혜 (2000).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희, 이윤주 (2010).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목표안정성과 자존감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53-573.
- 신재은 (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균, 원호택 (1991).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 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69-285.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양미숙 (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육성필, 김중술 (1997).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임상적 연구: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85-197.
- 윤선옥 (1994). **자아상태, 생활자세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주 (2002). **불안 및 동기에 따른 정보처리 학습기술의 피드백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3-202.
- 이재순 (1991).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용 (198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효심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규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영미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 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주애경 (2002).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아, 이혜은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2(1), 295-326.
- 통계청 (2010). 2010년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상담경향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현지은 (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70(4).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of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6, 187-25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serta, D. A., Dowd, E. T., Davis, D., & Ellis, A. (2010).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in primary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In D. David, S. J. Lynn, & A. Ellis (Eds.),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pp. 173-1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iarrochi, J. (2004).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beliefs and positive and negative indices of well-being: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Common Beliefs Survey-III.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63-176.
- David, D., Freeman, A., & DiGiuseppe, R. (2010).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Implications for mechanisms of change and practice in psychotherapy. In D. David, S. J. Lynn, & A. Ellis (Eds.),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pp. 195-2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ryden, W. (2002). *Fundamentals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London: Whurr Publishers.
- Ellis, A. (1987). A sadly neglected element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121-146.
- Ellis, A. (1991). The revised ABC's of rational emotive therapy. *Journal of Rational 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9, 139-172.
- Ellis, A. (1993). Chnaging rational-emotive therapy (RET) to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REBT). *The Behavior Therapist*, 9, 257-258.
- Ellis, A. (1994).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Birch Lane.
- Ellis, A. (1997). Must musturbation and demandingness lead to emotional disorders?. *Psychotherapy: Therap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4, 95-98.

- Ellis, A.,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2nd ed.). California: Impact Publishers.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 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 132-160.
- Gray, M. R., & Sternberg, I.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547-587.
- Hunter, J. E., & Gerbing, D. W. (1982). Unidimensional measurement,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and causal model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4, 267-320.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Francisco: Jossey-Bass.
- Kaslow, N. J., Broth, M. R., Smith, C. O., & Collins, M. H. (2012). Family-based interven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8, 82-100.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서울: 학지사.
- Lee, C., Jamieson, L. F., & Earley, P. C. (1996). Beliefs and fears and type A behavior: Implications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psychiatric health disorder sympto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151-177.
- Lindner, H., Kirkby, R., Wertheim, E., & Birth, P. (1999). A brief assessment of irrational thinking: The shorten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651-663.
- Mantzouranis, G., Zimmermann, G., Mahaim, E. B., & Favez, N. (2012). A further examin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 DAPCS with french-speaki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726-733.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cLeod, B. D., Wood, J. J., & Weisz, J. R. (2007). Examining the associati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7, 155-172.
- Michael, R., & Erika, K. (2006). The relation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7, 47-63.
- Nakamura, W. M., Stewart, K. B., & Tatarka, M. E. (2000). Assessing father-infant interaction using the NCAST teaching scale: A pilot stud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4, 44-51.
- Nanda, M. M., Kotchick, B. A., & Grover, R. I. (201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637-645.
- Petit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G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Rapee, R. M. (1997). The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 349-383.
- Rusee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 111-147.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8). Clarifying the link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on symptoms. *Merrill-Palmer Quarterly*, 54, 411-444.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539-559.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 217-256.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zentagotai, A., & Jones, J. (2010).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irrational beliefs. In D. David, S. J. Lynn, & A. Ellis (Eds.),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pp. 75-9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jsbroek, A. A. M., Hale III, W. W., Raaijmakers, Q. A. W., & Meeus, W. H. J. (2011). The direction of effect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elf-reported GAD and SAD symptoms. *European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20, 361-371.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 Woodruff-Borden, J., Morrow, C., Bourland, S., & Cambron, S. (2002). The behavior of anxious parents: Examin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of anxiety from parent to child.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 364-374.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 The mediating role of irrational beliefs

Cho, Eunju\* · Lee, Eunhe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depression and anxiety experienced by adolescents. To better elucidate these issu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759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t six academic high schools around G Provi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a mediating role at work between Adolescents' self-downing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Adolescents' need for approval mediates between both the mother's dependa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anxiety. With these results in mi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used in counseling and consultation sessions with adolescents who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and anxiety caused by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on, anxiety, irrational belief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2월 21일

---

\* Kyungnam University

## 부록 1

## 부를 대상으로 한 DAPCS 하위척도들의 요인 부하량

| 하위척도                                                     | I   | II |
|----------------------------------------------------------|-----|----|
| I.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     |    |
| 문항 3. 아버지는 내가 집을 완전히 떠나 독립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 .51 |    |
| 문항 5. 아버지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아버지의 조언에 의지할 때만 행복해 하신다. | .68 |    |
| 문항 7.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조차 내 문제에 간섭을 하신다.       | .66 |    |
| 문항 8. 아버지는 내가 친구 대신 아버지에게 의지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 .68 |    |
| II.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    |
| 문항 10. 아버지는 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를 소홀하게 대하신다.           | .79 |    |
| 문항 12. 아버지는 나의 성과가 남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 .77 |    |
| 문항 13. 아버지는 내가 좋은 등급(점수)을 받았을 때만 내게 사랑(애정)을 보이신다.        | .77 |    |
| 문항 16. 아버지는 내가 목표치를 높게 세울 때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신다.             | .55 |    |

주.  $N = 759$ 

## 부록 2

## 모를 대상으로 한 DAPCS 하위척도들의 요인 부하량

| 하위척도                                                     | I   | II |
|----------------------------------------------------------|-----|----|
| I.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     |    |
| 문항 3. 어머니는 내가 집을 완전히 떠나 독립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 .48 |    |
| 문항 5. 어머니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어머니의 조언에 의지할 때만 행복해 하신다. | .66 |    |
| 문항 7. 어머니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조차 내 문제에 간섭을 하신다.       | .63 |    |
| 문항 8. 어머니는 내가 친구 대신 어머니에게 의지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 .66 |    |
| II.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    |
| 문항 10. 어머니는 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를 소홀하게 대하신다.           | .72 |    |
| 문항 12. 어머니는 나의 성과가 남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 .75 |    |
| 문항 13. 어머니는 내가 좋은 등급(점수)을 받았을 때만 내게 사랑(애정)을 보이신다.        | .75 |    |
| 문항 16. 어머니는 내가 목표치를 높게 세울 때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신다.             | .50 |    |

주.  $N = 759$

부록 3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변 인        | 1      | 2      | 3      | 4      | 5      | 6      | 7      | 8    | 왜도   | 첨도   |
|------------|--------|--------|--------|--------|--------|--------|--------|------|------|------|
| 1. 우울      | —      |        |        |        |        |        |        |      | .97  | 1.08 |
| 2. 불안      | .65*** | —      |        |        |        |        |        |      | 1.53 | 2.81 |
| 3. 자기비하    | .44*** | .32*** | —      |        |        |        |        |      | .48  | -.40 |
| 4. 승인욕구    | .37*** | .27*** | .54*** | —      |        |        |        |      | .35  | -.52 |
| 5. 의존지향(부) | .19*** | .20*** | .23**  | .19*** | —      |        |        |      | .79  | .34  |
| 6. 성취지향(부) | .20*** | .21*** | .29*** | .19**  | .60**  | —      |        |      | .81  | .27  |
| 7. 의존지향(모) | .24*** | .21*** | .25**  | .21*** | .79**  | .49**  | —      |      | .67  | .08  |
| 8. 성취지향(모) | .26*** | .23*** | .31**  | .20*** | .50*** | .79*** | .59*** | —    | .66  | -.07 |
| 평균(M)      | 13.57  | 11.18  | 9.12   | 7.09   | 7.73   | 8.27   | 7.92   | 8.36 |      |      |
| 표준편차(SD)   | 8.22   | 8.52   | 3.46   | 2.60   | 3.08   | 3.64   | 3.06   | 3.53 |      |      |

주.  $N = 759$ . \* $p < .05$ . \*\* $p < .01$ . \*\*\* $p < .001$ .